

## Contents

JANUARY VOL.08

- 02 MOVIE NEWS**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 폐관
- 03 MOVIE NEWS**  
영진위 임금 체불 중재기구 설립 검토  
2009 시나리오 공모전 대상 발표 등
- 04 FESTIVAL**  
서울독립영화제 2009 폐막 등
- 05 CINNO CHART**  
2009년 흥행 Top 20
- 06 FOREIGN NEWS**  
서밋엔터테인먼트,  
<뉴 문>의 성공과 딜레마  
미국 최대 메가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그룹 탄생 등
- 08 BOX OFFICE**  
국내 박스오피스
- 10 PRODUCTION NOTE**  
한국영화제작사상황판
- 12 REPORT**  
2010 한국영화 트렌드 분석
- 14 INTERVIEW**  
<전우치> 최동훈 감독
- 16 REVIEW**  
<여배우들> <전우치>
- 18 MAKING FILM**  
<용서는 없다> 현장 스케치
- 19 SPECIAL 기획개발 에이전시**  
시장 현황과 전망  
이벤트 스톤 나경찬 대표 인터뷰  
크릭앤리버코리아 박재홍 대표 인터뷰
- 24 로케이션 뎀 인 제천**
- 30 GLOBAL REPORT**  
2009 할리우드 산업 결산
- 34 CINNO TALK**  
<사람을 찾습니다> 감독, 배우
- 38 OPINION LOUNGE**  
김준범/유승찬
- 41 ART PLUS**  
1월아트플러스 개봉작  
다양성영화 리뷰  
인터뷰 <친구사이?> 김조광수 감독  
아트플러스 탐방\_대구 동성아트홀
- 47 PUZZLE**  
영화퍼즐 & 낱말 맞추기



<왕림보살>



<신년 프로젝트>



#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 폐관

## 2010 독립영화전용관 운영 적정 단체 못 찾아

국내 최초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이하 인디스페이스)가 지난 12월 31일 운영을 중단했다. 2007년 11월 8일 개관한 인디스페이스는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지원하고 한국독립영화협회가 위탁 운영한 독립영화 전문 상영관으로, 2010년 영진위가 독립영화전용관을 위탁이 아닌 공모 사업으로 변경하면서 약정이 끝나는 31일 폐관이 결정된 것.

영진위는 지난 4월까지 인디스페이스의 빈자리를 대신할 독립영화전용관 사업운영자를 모집했으나 22일 적정 단체가 없어 재공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같은 기간 진행한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운영자 공모 역시 마땅한 사업자를 찾지 못해 재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액트 역시 인디스페이스와 마찬가지로 한국독립영화협회가 위탁 관리해온 곳. 미디어액트를 포함한 다섯 곳이 이번 사업에 지원했으나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나 미디어액트 관계자는 “결과에 만족하지 않지만 좀더 준비해서 다음 공모에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

다. 이번 위탁 사업자 공모는 김창유 용인대 교수, 전영문 프로듀서, 노중운 노비스 대표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 5인이 심사를 맡았다.

이번 공모에 대해 독립영화배급지원센터 원승환 소장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는 인디스페이스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제로 전환된 후, 독립영화전용관을 처음 기획할 때의 마음가짐과 계획으로 민관의 파트너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믿음을 갖기에 현재의 상황이 그리 녹록하지 않다”며 “공모제로의 전환은 그렇다 하더라도 공모 후 ‘1년’이라는 운영기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독립영화진흥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거리가 먼 근시안적인 정책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누가 독립영화전용관 사업의 새로운 운영자가 되더라도 ‘영화관 이전 개관’에 이어 사업을 안정화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 분명하지만, 이보다는 2011년 사업자 공모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릴까 걱정”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인디스페이스 홈페이지에는 독립영화전용관이 다시 운영되기를 바라

는 관객들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인디스페이스는 ‘굿바이 인디스페이스’라는 행사를 마련하고 <워낭소리> 재개봉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한편 영진위는 지난달 초 성복구청이 관리하는 아리랑시네센터를 제2의 독립영화전용관으로 지정했다. 극장 관계자는 “지난 봄부터 영진위와 함께 이 같은 사업을 논의해 왔다”며 “독립영화 상영은 개관 이후 처음이지만 앞으로 다양한 독립영화를 상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아리랑시네센터는 <아바타> <전우치> 등과 함께 <여행자>(우니 르콩트 감독)와 <똥파리>(양익준 감독)를 상영하고 있다.

권해정 기자



2009년 12월 31일(8호) | 발행처\_영화진흥위원회 | 발행인\_조희문 | 편집장\_유승찬 | 기자\_황희연, 김수연, 권해정 | 발간 담당부서\_영화정책센터(센터장\_김보연, 담당\_박이혜스) 130-010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6-46 | 전화\_02-9587-518 | 디자인·제작\_designeel 02-541-2465 | 일러스트\_허정애  
본 책자는 비매물입니다. 이 책의 저작권은 영화진흥위원회에 있습니다. 발행인 서면 동의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본지에 실린 글은 위원회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영진위, 1,020만원 세대 스태프 열악한 환경 돕는다

임금 체불 중재기구 설립, 임금쿼터제 도입 검토 등



특리영화 <사람을 찾습니다> 촬영현장

2009년 영진위가 스태프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영화 스태프의 평균 연봉은 1,020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열악한 중무로의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의 '영화인 신문고'에는 2009년 12월 현재까지 41건의 스태프 임금 체불 신고가 접수된 상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4일, 영화현장의 낮은 임금 수준과 고질적 임금 체불 및 불공정한 계약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또 16일에는 영

진위가 영화 스태프 임금 체불과 관련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최진욱 위원장과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최현용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향후 영진위와 영화계 노사가 참여하는 영화산업협력위원회 내에 영화 스태프 임금 체불을 다루는 중재기구의 설립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이들은 임금 체불 상습 업체에 대한 세부규정을 정하고 영진위의 강력한 대응 필요성도 강조했다.

영진위는 지난 11월 문화부 장관 업무 보고에서 장편 독립, 예술영화 지원사업에 스태프 인건비 쿠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건비 쿠틀제란 지원금의 25% 이상을 스태프 인건비로 쓰도록 하는 제도다. 물론 배우, 감독급 스태프는 제외한다. 또 임금 체불을 상습적으로 일삼는 영화사는 명단을 공개하고 지원서 접수 자체를 제한하는 강도 높은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에 위탁해 '영화 스태프 임금 체불 현황 조사 가이드 북'을 제작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영화산업 내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만, 좀더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관계자는 "상습적인 임금 체불로 제작지원 자격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는 편법을 쓸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적은 제작비로 영화를 찍어야 하는 독립영화 감독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며 "확실적인 적용보다 현실에 맞는 세부적인 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Hot News

### 키노아이DMC, 일본 15개 도시 돌며 '리얼' 한국영화 알린다

내년 3월까지 '眞! 한국영화제' 개최



<사람을 찾습니다> <가족이 마라> 등의 독립 영화를 배급하고 있는 키노아이(DMC이하 키노아이)가 <사람을 찾습니다>(이서 감독)와 <노르웨이 숲>(노진수 감독)의 일본 수출을 계기로 본격적인 일본 직배사업을 추진한다. 키노아이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0년 1월 키노아이재팬을 설립하고 마루만 파토스, 플라자 마루만 등의 일본 기업과 사업 제휴 등을 통해 일본 영화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키노아이의 이은경 이사도 키노아이 재팬의 대표이사로 취임, 활동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키노아이는 "향후 일본에서의 한국영화 배급은 물론 일본영화의 투자, 제작, 배급과 함께 부가편권 시장에도 적극 진출해 일본 영화시장에 가깝게 다가갈 예정"이라며 이같은 사업의 배경을 설명했다.

사업의 첫 번째 움직임으로 키노아이는 일본 배급사인 시네마스코레와 함께 일본 전역에서 '眞! 한국영화제(Real Korean Cinema Festival)'를 개최한다. <날아라 펭귄>(임순례 감독), <경축! 우리 사랑>(오준경 감독),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부지영 감독), <하늘을 걷는 소년>(노진수 감독)까지 4편의 영화가 영화제를 통해 소개된다.

지난 26일 상영을 시작한 나고야를 선두로 도쿄, 오사카, 삿포로, 후쿠오카 등 일본 5개 도시를 포함한 15개 도시를 돌며 각 2주씩 순회 상영할 예정이다. 키노아이는 "더 이상 한류가 아닌 '리얼(眞)'한 한국영화를 일본에 소개하고자 이번 영화제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본에 소개된 영화들이 대부분 '한류'라 불리는 스타배우 중심의 영화였다면 키노아이가 배급하는 영화들은 그동안 일본에 판매되기 어려웠던 중소 규모의 다양한 한국 영화이기에 그 의미가 남다르다.

## 2009시나리오공모 대상 <종말의 새> 선정

한국영화시나리오마켓 게시판 심사기준 댓글 공방



영진위는 지난 18일 2009 한국영화시나리오공모 대상에 김수영 씨의 <종말의 새>를 선정했다. 4년 만에 부활한 이번 공모전에는 역대 최다인 1,204편이 접수됐다. 송길한 작가를 심사위원장으로 한 12명의 심사위원이 11월 16일부터 25일까지 1차 예심을 진행했고, 2차 본심은 광재용 감독을 심사위원장으로 김미희 싸이더스 FNH 제작 부문 대표, 정윤철 감독, 이미연 감독, 김문성 작가 등 영화계 인사로 구성된

5인이 심사를 맡았다. 이에 대상은 김수영의 <종말의 새>, 최우수상은 장경순의 <과녁>, 우수상은 서상원의 <침침산중>이 선정됐다. 광재용 심사위원장은 "시나리오가 시작부터 끝까지 완성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가능한 가슴을 울릴 수 있는 작품이 수상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세 작품을 가렸다"고 밝혔다.

또 "심사작 46편에서만 무려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어갔다. 너무 하다는 생각도 들었다"면서 "요즘 스티러가 너무 많다"고 심사평을 전했다. 이같은 심사평에 한국영화시나리오마켓 자유게시판이 한동안 시끄러웠다.

한 네티즌은 '심사위원 선정 결과 運七技三(운칠기삼)'이란 제목으로 "스티러가 많다, 살인물이 많다는 등의 심사평은 은연중에 개인의 취향을 드러낸

것 아니냐"며 이번 심사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에 누리꾼들은 게시물에 동의하는 댓글과 반박하는 댓글을 뽁뽁하게 써내려갔다.

### FOCUS ON

#### 벅스, 아이폰 맞춤형 영화 다운로드 서비스

아이폰이 국내에서 무서운 돌풍을 일으키면서 인터넷 서비스 시장에서도 만만치 않은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 네오위즈벅스는 업계 최초로 아이폰 전용 영화 다운로드 서비스를 시작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보통 아이폰에서 동영상 재생하기 위해서는 동영상 파일을 MP4 파일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벅스에서 다운받으면 별도의 인코딩 없이 아이폰에서 동영상이 재생된다. 벅스 관계자는 "지난해 4월부터 아이팟 터치 환경에 맞게 서비스해왔으며 국내에서 아이폰 판매량이 급증함에 따라 다운로드 건수가 2배 정도 증가했다"고 밝혔다.